2024 국어 임용 합격 수기

안녕하세요! 저는 사범대를 졸업하고 이번에 4수에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2차를 잘 못하는 편이었고, 그로 인해 두 번의 최탈이라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제 전략은 최대한 1차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었고, 실제로도 점수를 큰 폭으로 올렸어서 저의 공부 방법을 공유드리고자 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개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의 공부 방법은 참고만 해주시고, 각자에게 맞을 것 같은 방법을 취사선택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저의 점수 변천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수(2021)	재수(2022)	3수(2023)	4수(2024)
교육학	16.33	83.33 (+1.33)	20	16.67
전공	55		61 (+10.33)	69.33 (+8.33)
2차		85.63	84.35	97.12
최종 컷	-2. ?? 1탈	-10.44 최탈	-1.14 최탈	+10.95 최합

재수 때 1차 총점밖에 기록을 안 해 둬서.. 교육학이 15점대였던 거로 기억합니다. 대충 계산을 해 보면 전공 점수가 67~68정도였던 것 같아요.

최종 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3수 때 컷플 10이 넘는데도 최탈을 했습니다 (정말 부끄럽네요^^). 컷플 10에 최탈하는 구전 설화 주인공이 저랍니다...^^ 아직도 2차 점수가 왜 저렇게 나온 건지 의문이지만 제가 잘 못했기 때문이겠죠..ㅎ 아무튼 재수 때 전공 점수가 큰 폭으로 뛰었고, 3수와 4수 때도 컷이랑 비교했을 때 전공 점수가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이제 각 영역별로 도움이 되었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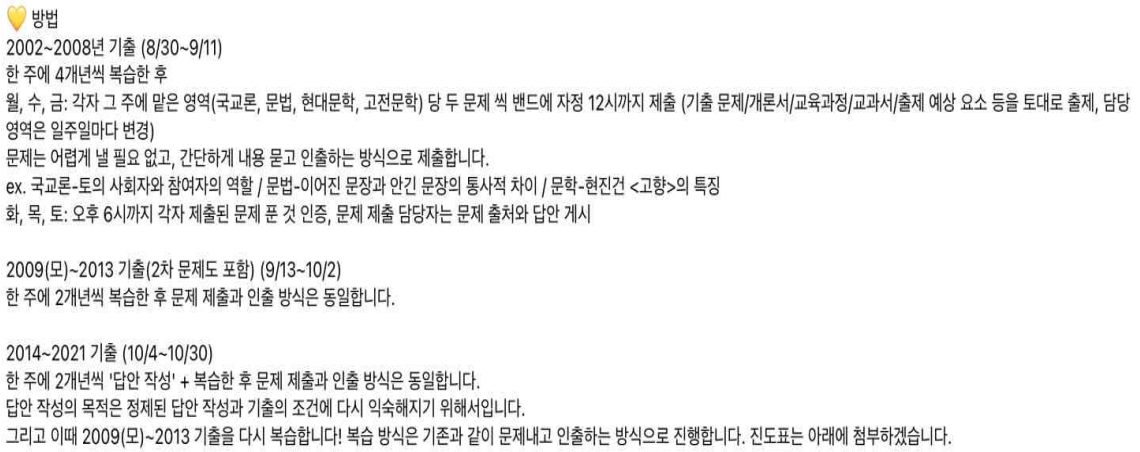
① 상반기 기출 분석 스터디 (객관식+서술형 기출) ★

참사랑국어 elmo님 틀을 활용해서 기출 분석 스터디를 진행했었습니다. 스터디원은 4명으로 구성하였고, 한 주에 1개년씩 각자 틀을 채우며 분석한 내용을 주중에 밴드에 올린 후 주말에 줌으로 모여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터디원 답안에 대한 피드백, 문제에 대한 의문점 등) 이때 중시했던 점은 서로의 사고 과정 공유, 개론서와 같이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답안 구성하기, 조건에 입각한 정제된 모범 답안 만들기였습니다. 또한 해당 연도의 기출 문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도의 관련 기출을 함께 보며 비슷한 내용이 어떻게 반복 및 변형되어 출제되는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스터디를 하면 혼자서 답을 고민하는 것보다 여러 스터디원의 생각을 들으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출 분석 스터디는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문풀, 모의고사 등으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상반기에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4수 때는 공부를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기출 내용이 어느 정도 숙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출 분석 스터디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② 하반기 기출 내용 요소 인출+답안 작성 스터디 (2002~서술형 기출) ★

재수와 삼수 때 진행했던 스터디인데, 이 스터디가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터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주에 4개년씩 복습+답안 작성까지 해야 하는 빡센 스터디였기 때문에 이미 기출 분석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기출 내용을 숙지했다는 것을 전제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출 내용 요소 암기, 출제 경향 파악, 예상 출제 요소 파악 등에 많은 도움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객관식 이전 기출(1997~2008)에 유의미한 내용들이 많아서 한 번쯤은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2002년부터 보긴 했지만요^^;;) 정말 시간이 없으시다면 객관식 기출부터라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많이 등장해요!

③ 기출 문제 회독

스터디를 진행하지 않는 시기에도 기출을 계속 보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 국교론/문법/문학 영역을 공부할 때 관련 내용이 나왔던 기출이 있었으면 다시 한 번 보고, 3공 분석지를 활용해서 어려운 영역을 따로 다시 풀어 보거나 시험 직전에 기출을 다시 쭉 풀어 보는 등 기출을 놓지 않고자 했습니다. 기출을 풀면서 관련 이론서 내용을 인출해 보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출 문제 회독이 되었던 것 같아요.

④ 답안 작성 팁

공부를 계속 하면 할수록 아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써야될 것 같고, 저것도 써야 될 것 같아서 답안이 뚱뚱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오히려 내용을 잘 몰라서 구구절절 쓰느라 뚱뚱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ㅠ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조건에서 묻는 내용만 간결하게 쓰고자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1합 했던 시험들에서 답안 길이가 4줄 이상인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3줄 안에 모든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조건에서 묻는 내용만 쓰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답안 작성을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ㅎㅎ

기출은 모든 내용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출 분석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체로 문제 유형도 비슷하고 묻는 내용도 반복되는 편입니다. 기출에 나왔던 요소들은 반드시 숙지하시고 스터디나 복기 자료 등을 활용하여 모범 답안을 만드는 작업을 꼭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 국교론

① 교육과정(2009, 2012, 2015, 2022)+개론서 단권화 ★

저의 국교론 공부법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저에게 아주아주 큰 도움이 되었던 작업입니다. 저는 관련되는 내용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으면 더 정리가 안 되는 타입이라 시간을 들여서라도 단권화 작업을 했었습니다.

- ②설득 ②토의 Q 2019A서11, 2009(모)-03, 2009-03., 2023A서06

학년	성취기준	학습 요소
[9국01-04]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토의하기 (문제 해결) → 합리적 문제해결력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학습자가 수행한 면담, 발표, 토의, 토론, 대화에 대하여 분석적 또는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세우고 이 평가 기준에 따라 교사 평가, 동료 평가를 한다. 평가 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해당 학습에서 중점을 둔 부분에 대한 평가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평가하고 피드백하도록 한다.

- 고등.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화자가 청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사용

학년	성취기준	학습 요소
09 화작 II	토의의 개념, 목적, 형식, 절차, 방법 등을 이해한다.	토의하기 (개념, 목적, 형식, 절차, 방법)

-성취기준 해설

이 내용은 토의의 담화 유형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토의의 개념과 목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토의 유형의 형식, 절차, 방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토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화법의 한 형태이다. 토의에는 심포지엄, 패널 토의, 포럼, 회의, 원탁 토의, 세미나, 콜로퀴엄(colloquium), 브레인스토밍 등이 있다. 심포지엄이란 어떤 논제에 대하여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 각 측면의 전문가(토의자)가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토의의 형태이다. 패널 토의는 3~6 명의 전문가가 일반 청중 앞에서 토의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토의의 한 형태이다. 패널 토의에서와 달리 심포지엄에서는 발표자 간 상호 토의는 하지 않는다. 포럼은 공공의 장소에서 전문가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발표한 다음에 청중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토의를 벌이는 것이다. 심포지엄이나 패널 토의에서도 청중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토의를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심포지엄이나 패널 토의에 포럼의 형식을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회의는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토의의 형태이다. 회의에서는 보고, 토론, 토의 등 다양한 담화 유형이 포함되는데 의사결정을 위한 엄밀한 절차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원탁 토의는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상하의 구별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세미나는 연구자가 학술 논문을 발표한 뒤 참석자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의의 한 형태이다. 콜로퀴엄은 세미나와 비슷하나, 권위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다른 사람들의 그릇된 의견을 바로잡아 주게 하는 점이 세미나와 다르다. 브레인스토밍이란 참석자들이 새롭고 기발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제시한 뒤에 그것들 중에서 평가나 토의를 통해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토의의 절차는 그 형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토의는 문제를 설정하고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그 안들을 평가하고 검증한 뒤 그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방안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토의의 문제는 "교실 붕괴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대학 입시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등과 같이 **의문문**으로 서술할 수 있다. 토의 문제가 정해지면, 이를 모든 토의 참여자에게 알려 주어 그것에 관한 사전 조사 연구를 하도록 한다.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탐구하여야 한다.

학년	성취기준	학습 요소
09 화작 II	사회자와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알고 토의한다.	토의하기 (사회자와 참여자의 역할)

★ -성취기준 해설

이 내용은 토의에 참여하는 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규칙에 따라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토의의 유형에 따라 사회자와 참여자가 각각 수행해야 할 역할을 이해하고 토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토의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사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자의 역할로는 토의의 계획과 준비, 토의의 실제적 진행, 토의 내용의 정리와 보고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토의 진행 임무가 가장 중요한데, 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토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주어진 토의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이나 결론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과제 해결의 임무**이다. 다른 하나는 모든 토의 참여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토의 분위기를 만들고 유지시키는 임무**이다. 과제 해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자는 토의 참여자들에게 토의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고, 토의 사항들을 순서대로 제시해 주면서 그에 대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의견 교환을 장려하되, 토의가 빗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때때로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종합해 주면서 토의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얻는 방향으로 토의를 유도하여 나가야 한다. 그런데 사회자가 이러한 과제 해결의 임무에만 치중하다 보면, 독재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자가 되기 쉽다. 따라서 사회자는 자유롭고 편안하며 협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토의자가 발언 기회를 독점하지 않도록 하면서 소극적인 참여자들에게도 발언 기회를 균등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며, 토의자들 사이의 갈등과 의견 충돌 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주어야 한다.

토의 참여자는 토의 문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미리 갖추고 해결 방안 등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한다. 실제 토의에 임하여서는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참여하되 협동 정신을 발휘하여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토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토의 참여자는 토의 절차를 숙지하고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지켜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기의 의사나 주장을 말할 때에는 어법에 맞는 말로 분명하고 조리 있게 표현하되, 예의 바른 태도로 말하여야 한다. 토의 문제에서 벗어나거나 불필요한 말, 확실한 증거가 없는 말,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혼자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것을 삼가고, 다른 참여자와 의견 충돌을 피하면서 합의점을 찾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 협조적 태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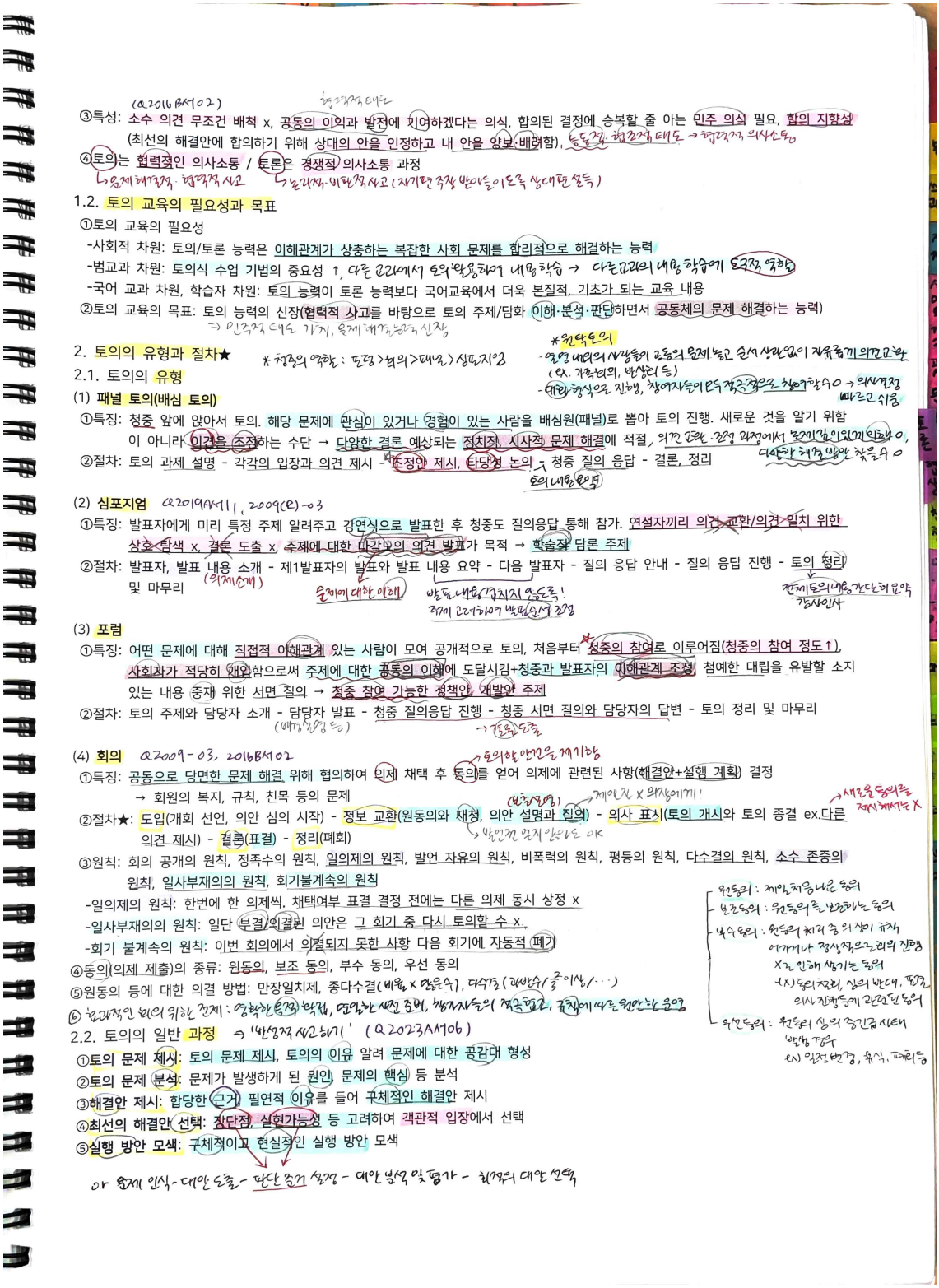
[12화언 01-11] 토의에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 토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탐색, 활용하여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분석하기, 공동의 문제 해결하는 합리적인 대안 도출하기, 대안의 선택을 위한 판단 준거를 설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여 문제 해결하기

→ 협력적 문제 해결능력↑

→ 정보처리능력↑

Q 2023A서06: 문제해결 가능성, 실현가능성 등



글씨체가 지렁이라 부끄럽네요...^^ 화법/작문/독서 모두 만들었고, ㅈㄷㅎ 선생님 이론서 목차를 바탕으로 관련 교육과정, 개론서, 기출 내용을 하나의 노트로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 이 단권화 노트를 만들 때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우선 목차별로 2009~2015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및 평가 유의 사항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2 교육과정은 나중에 나와서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 펜으로 추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개론서(국교이, 역락 화교론, 사평 의소이, 사평/역락 작교론, 사평/역락 독교론)를 읽고 요약한 후, 각 목차에 맞게 배치했어요. 재수 때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요약한 내용에 부족한 점이 많았어서, 개론서를 회독하거나 문풀을 하면서 틈틈이 보완하였습니다. 기출을 풀면서도 관련 내용이 있을 때마다 보라색 펜으로 추가했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완성된 단권화 노트는 계속적으로 회독하고 백지 인출을 하기도 하며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고자 했습니다.

② ㅈㄷㅎ 문풀 및 모의고사

상반기 때 내용 지식을 채우고 하반기에는 문풀과 모의고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아는 내용을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심리적으로 불안한 하반기에 문풀과 모의고사를 풀면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내용도 모른다니;;'하면서 좌절하기도 했지만..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모르는 내용은 꼭 숙지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양이 방대해서 밀리기 쉬운 만큼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3. 문법

① 개론서 단권화

문법 역시 목차별로 개론서 내용을 요약하고 하나의 단권화로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국음강, 한문총, 우말을 기반으로 만들었고, 이것 역시 문풀과 기출을 풀면서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문법은 기본적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론서를 읽을 때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을 꼭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② ㅈㄷㅎ 문풀 및 모의고사

③ 한문총 1회독 스터디

시험 1달 전쯤 한문총 회독 스터디를 하며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사실 공부할 때 단권화를 주로 봐서 개론서를 거의 읽지 않았었는데, 마지막에 1회독을 하면서 부족한 내용도 채우고 머릿속에 구조화도 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4. 문학

① 작품 분석 스터디

임용 기출과 평가원 기출 작품의 원문을 해법처럼 분석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범위를 나눠 일주일에 시 10편, 소설 5편 정도 분석했습니다. 소설 같은 경우는 원문 전체를 해법처럼 뜯어서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ㅅㅎ 선생님의 소설 분석 틀을 활용하여 중요 내용을 위주로 분석했습니다. 이것 역시 단권화 노트처럼 작품을 분석할 때 빈 공간에 평가원 기출 보기/수능특강 보기/관련 개론서 내용을 함께 정리하고 회독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법을 회독하는 것도 좋지만 원문을 직접 분석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석력이 늘어서 모르는 작품이 나왔을 때 덜 당황하게 되는 것 같아요!

② 키워드 정리본 만들기 ★

저는 문학을 제일 어려워 하고 점수도 제일 안 나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키워드를 잘 못 뽑아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작품 분석을 하면서 내가 잘 생각해 내지 못하는 키워드를 쫙 정리해서 계속 읽었습니다. 현대시/현대소설/고전운문/고전산문 모두 만들었어요. 아래는 고전운문 예시입니다!

-태평성대, 국태민안 기원
-우국충정: 나라 걱정, 조정의 어지러움을 해결할 인물 갈망, 목민관(대부)로서의 사회적 책무
-연군지정: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 맹세, 그리움
  ㄴ 군신 관계의 우의적 형상화(남녀 관계로 치환)
-충신연주지사: 군신 관계와 달리 남녀 관계는 일반적임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는
  독자의 공감을 얻는 데 효과적!
  ㄴ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공간: 임금의 절대성과 위상
-표면적/본질적 청자
-슬픔의 종교적 승화
-맑고 깨끗한 성품, 고결한 성품, 드높은 기상, 고매함, 숭고함
-벽사진경: 귀신을 쫓고 경사로운 일을 맞이함 → 주술적
-동경, 소망, 예찬, 지향
-동병상련, 감정 이입, 동일시 → 대상에 대한 친근감, 공감
-학문적 자부심, 만족감, 자긍심, 건국 칭송, 개국의 정당성, 사대부의 화려한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 건국 주체로서의 당당함과 자신감
-유교적 충의관: 자연으로 물러나 한가한 생활을 누리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음. 모든 것을 임금의 은혜로 귀결시킴
  → 군주의 은혜로운 통치 덕분에 강호에서 안온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인식, 정치 현실과 강호자연의 합일
  ⇒ 임금의 은혜라는 질서 아래 조화롭고 안정적인 세계
  천지의 섭리와 인간의 도리가 조화되는 세상 지향
  (Q2017-A기입-07)
-탐관오리의 가혹한 수탈, 부정부패, 허장성세, 비굴함
-현학적 태도(학식이 있음을 자랑함) 비판
-진실이 아닌 거짓이 난무하는 세태, 속고 속이는 세태
-모의, 작당을 일삼으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무리
-참언: 거짓으로 꾸며서 남을 헐뜯어 윗사람한테 고함
간언(충언):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하는 말
-전쟁 당시 백성과 나라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는 무능하고 이기적인 권력자의 모습 비판
-하층민이 겪어야 했던 삶의 비극성
-주체적 여성 의식: 자신의 삶과 운명 개척

저는 그냥 냅다 만들었지만.. 시대별로 정리해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시대의 작품은 키워드도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저처럼 키워드 뽑는 걸 어려워하신다면 이 작업 강추드립니다!!

③ 문학 키워드 인출 퀴즈 스터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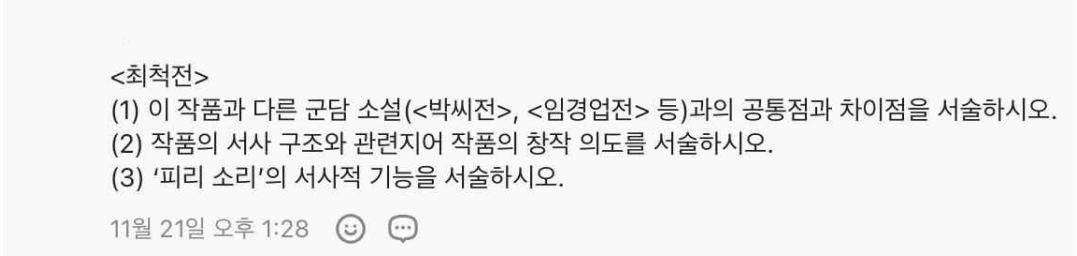
시험 1달 전에 출제 예상 작품의 키워드 인출 퀴즈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진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적: 영역별 작품 중요도 평정, 작품별 중요 내용 인출

💛방법: 요일별 영역에 맞춰 꼭 나올 법한 작품 위주로 중요 내용/키워드 묻는 문제 1개씩 출제하기(해당 요일 자정까지) - 다음날 전날 문제 풀고 새 댓글로 답변 달기(출제자도 자기 문제 풀어야 함, 전날 자신이 출제한 문제 답안과 출처도 댓글 맨 밑에 함께 달아 주세요!)
출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ex. 임용 기출, 평가원 모의/수능, 교과서 학습 활동, 해법문학, 각종 문학 개론서 등
문제 출제 시 작품은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해 주세요.

<요일별 영역>
월-현대시
화-현대소설, 현대 극/수필
수-고전시가
목-고전산문, 현대 극/수필
금-자유 영역 (내고 싶은 영역으로 내 주시면 됩니다 ㅎㅎ)

<문제 예시>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문체적 특징을 2가지 서술하고, 이러한 문체적 특징이 주제를 전달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시오. (출처: 미래엔 문학 교과서)
<동동>에서 '황화'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서술하시오. (출처: 해법)
등등.. 간단한 서술식 문제로 내주시면 됩니다!



이 스터디에서 다뤘던 작품이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 등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시험 직전부터 스터디를 시작했지만... 더 빨리 시작했다면 더욱더 다양한 작품을 다룰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쓰다 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ㅠㅠ 다소 구구절절인 느낌이 들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학과 2차 관련해서도 작성하고 싶지만 저의 체력 한계 이슈로 인하여.. 질문 사항을 댓글로 남겨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별거 없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자신을 보듬어 주세요. 시험 준비하면서 정말 끊임없이 불안하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부정적 자아개념에 휩싸이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 특히 2번의 최탈을 경험하면서 자기 혐오와 불안이 극에 달했었어요. 저는 저에게 채찍질만 하면서 발전하지 않는 저의 모습에 더 실망하는 등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ㅠㅠ.. 선생님들은 그러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좀 더 보듬고 사랑해주면서.. 당근도 줘 가면서ㅎㅎ 너무 자신을 옥죄지 마시고 건강한 수험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컷플 높다고 2차 준비 대충하면 저처럼 되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세요^^!!!)

질문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